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12. 21 (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미리보는 '24년 대만 총선 영향

칼럼의 재해석

중국 쇼핑앱의 초저가 공습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미리보는 '24년 대만 총선 영향

- ✓ 대만 총통선거 박빙구도: 친미 성향 민주진보당이 다소 유리하나 국민당 역전 가능성 존재
- ✓ 누가 되던 미국의 친 대만 노선 유지, 중국은 민주진보당 연임 시 경제보복 가능, 국민당 집권 시 양안관계 지정학 리스크 낮아져
- ✓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대만 총선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중립. 중국이 대만에 ECFA 관세특혜 철폐 시 한국 등 주변국의 간접적 반사이익 가능

'24년 대만 총통선거: 박빙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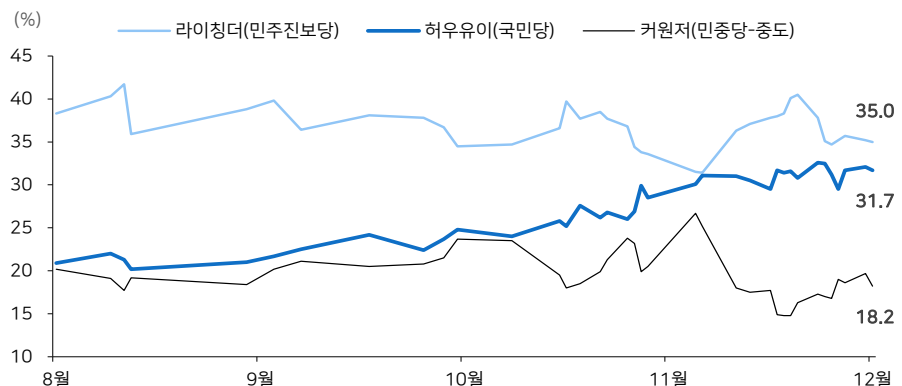
오는 1월 13일 대만 총선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에 치러진다. 내년의 전세계 수많은 정치 선거에서의 가장 첫 번째 이벤트이자,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크다.

현재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박빙 구도

총선 20여 일을 앞두고 대만 총통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박빙 구도이다. 12월 14~18일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 여론조사(FORMOSA, 민주진보당 편향 여론기관)에 따르면, 친미 성향 집권당인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0%, 31.7%로 근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여당이 줄곧 선두를 유지해왔으나, 야권 단일화 무산(11/24) 이후부터 국민당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 중이다. 한편 중도 성향인 민중당 후보 지지율은 18.2%에 그쳤다(그림 1).

그림1 '24년 대만 총통 후보자(집권당)별 지지율 추이: 여당과 야당 간극 크게 축소



주: 12월 19일 기준. 자료: FORMOS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야당 국민당 지지율 빠르게
상승하며 격차 축소

여당과 야당 후보자 지지율이 박빙이다 보니, 아직 총통선거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상당수의 대만인들이 자신들의 영토가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 양안 전쟁을 불사하려는 듯한 민주진보당의 과도한 독립 추구 움직임에 관한 우려 또한 크다. 이 바람에 최근 야당인 국민당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정당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표1 '24년 대만 총통선거 후보자별 주요 공약

				
후보자		라이칭더 - 샤오메이친	허우유이 - 자오샤오캉	커원저 - 우신잉
정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집권당	중국국민당(국민당): 제1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 제2야당
정치성향		친미 반중	친중	중도(균형외교)
출생연도		- 라이칭더: 1959.10.6 - 샤오메이친: 1971. 8.7	- 허우유이: 1957.6.7 - 자오샤오캉: 1950.5.6	- 커원저: 1959.8.6 - 우신잉: 1978.5.18
총통 후보자 경력		타이난시 시장, 부총통 민진당 주석	경찰청장, 신베이시 시장	타이베이 시장, 민중당 창당/당주석
주요 공약	양안관계	4대지주(支柱) - 대만의 자체적 전쟁 억제력 건립 - 경제안전이 곧 국가안전 -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와 동반관계 확립 - 안정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양안관계	1. 3D전략 - 제지(Deterance) - 대화(Dialogue) - 위험/충돌 단계적 축소(De-Escalation) 2. 중국과 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체결 추진 - 중국인의 대만 관광, 취업시장 전면개방	1. 상호 원칙 - 상호인식, 상호이해, 상호존중, 상호합작, 상호양해 2. 차이잉원 총통의 기본 외교 노선 계승 및 양안 소통에서 우호 정책 추진 - 문화, 스포츠 등 경제적 이익부터 대화 시작, 정치가 마지막
	국방/안보	실무 훈련 강화 및 국제 군사 합동 훈련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확대	1. 의무 복무 기간 4개월로 단축 2.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확대 (현재 2.5%)	국방 예산을 GDP의 3%수준으로 확대 (현재 2.5%) 및 국산 무기 사용 강조
	경제정책	1. 임금인상 2. 기업 감세	1. 적극적 주택 대출 지원 - 청년층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1,500만NTD 대출 및 계약금 일부 면제 2.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 및 기본임금 인상	1. 사회 주택의 '강력한 건설' 2. 조세제도의 '강력한 개혁' 3. 임대료의 '강력한 지원'
	산업 육성	1. 반도체 경쟁력 강화 - 타오위안, 신주, 마오리 실리콘밸리 추진 2. AI 산업화, 산업의 AI화 3.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1. 반도체 산업의 유지 및 확대 2. AI 산업의 이노베이션 3. 산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1. 반도체 산업의 유지 및 확대 2. 반도체/ICT + a 3.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기타	양육비 부담 경감	65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 의료보험 혜택	

자료: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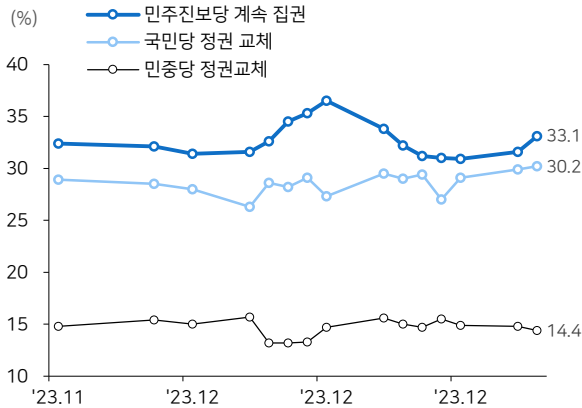
민주진보당이 소폭 우위이나,
뒤집힐 위험도 존재

물론 아직까지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당선 확률이 높다. 정당교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당이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는 비중이 33.1%로 국민당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중(30.2%)보다 2.9%p의 차이로 높고,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당 후보자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비중도 49.8%로 높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진보당 편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극소한 차이는 실제 결과에서 뒤집힐 위험이 있다.

최대 변수는 중도 지지자들의
투표 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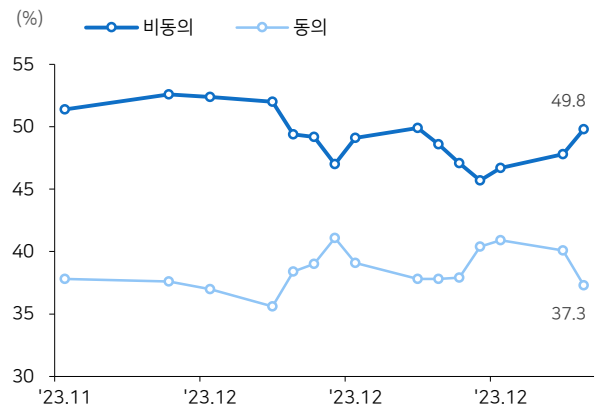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 대만선거의 최대 변수는 중도 성향 민중당 후보 커원저 지지자들의 투표 행방이다. 만약 민중당 지지율이 막판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유권자들은 힘을 한 곳에 잘 몰아주지 않는 심리가 심해 국민당에 표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오는 12월 30일 대만에서는 후보자들의 TV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공개 TV 변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변론에 따라 중도와 유권자들의 투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향후 4년 어느 정당 집권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결과



자료: FORMOS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내년 정권 교체 시 야당 후보자에 투표한다 설문결과



자료: FORMOS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역대 대만 총통과 양안관계 기초

임기	총통	집권당	양안관계 정책 기초
1948-1975	장제스	국민당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 정통중국과 비적은 양립 불가
1978-1988	장징궈	국민당	3불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1988-2000	리덩후이	국민당	초반 전임과 동일 후반 양국론 (양안은 정통-반란정부, 하나의 중국, 또는 중양-지방 관계 아니라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
2000-2008	천수이벤	민주진보당	초기: 四不一沒有: 독립선언, 국호변경, 헌법개정과 국민투표X,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 폐지 없음 중반: 일반일국, 대륙에도 대만에도 별개의 나라가 각각 있음 후반: 대만화,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에서 '중국'이라는 명칭을 삭제
2008-2016	마잉주	국민당	新3불정책: 통일도, 독립도, 무력도 사용하지 않음.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2016-현재	차이잉원	민주진보당	有溝通、不挑釁、沒意外, 대륙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도발하지 않으며 양안관계에 의의는 없을 것 예측가능성·지속가능한 양안관계 유지

자료: 나무위키,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대만 당파별 당선에 따른 미중 대응과 관계 분석

표3 '24년 대만 집권당 당선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정책 대응 및 미·중 관계 분석

대만 당선 정당	중국 대응	미국 대응	미·중 관계
민주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 충돌 X ▪ 대만 주변 군사활동 증가 및 경제제재(ECFA 관세특혜 중단) 가능성 상승 → 단기 중국·대만 경제관계 불확실성 상승. 장기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친 대만 노선 견지 (어느 당파가 되던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	현재 양안 긴장 관계 유지
국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주변 군사활동 감소 ▪ 친대만 행보, 양안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 지정학적 리스크 하락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강화, 단 중국을 통한 미국의 대중압박 한계 발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민주진보당 연임의 경우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 경제보복 예상

민주진보당 연임의 경우: <표 2>에 정리한 것처럼 민주진보당이 연임된다면 중국은 1) 대만 지역의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2) 경제제재(ex, ECFA 관세특혜 중단) 등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군사활동은 이미 작년 8월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함께 계속 늘어 왔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이다(그림 4).

그러나 경제제재에 따른 대만기업의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는 '23년 4월 12일에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12월 15일에 무역장벽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민주진보당이 연임되면 양안의 자유무역협정인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관세특혜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CFA 관세특혜 철폐 시 방직, 기계, 석유화학 산업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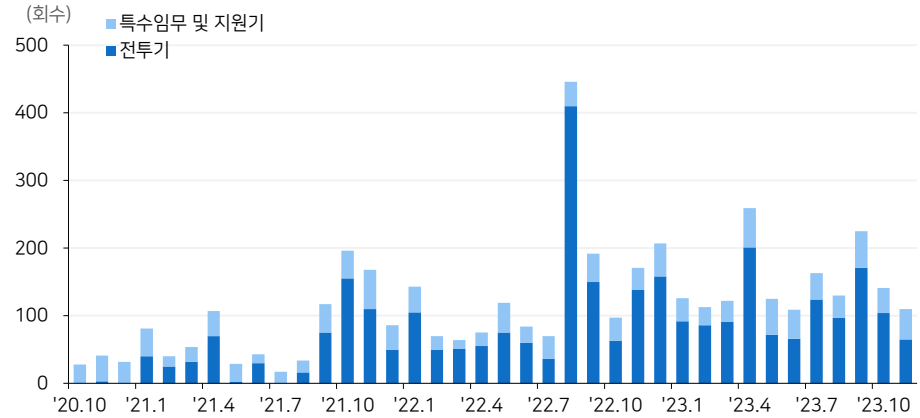
ECFA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고, 해당 지정품목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은 205억 달러('22년 기준)이며, 지난 13년간 누적 총 98.4억 달러의 관세 혜택을 받았다(같은 기간 중국이 받은 관세 혜택은 10.5억 달러). 비록 해당 지정품목이 대만의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6.7%를 차지한다(그림 5). 이에 관세특혜를 폐지된다면 자유화 품목이 많은 대만의 방직, 기계,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표 3>.

단, 중국의 대만 무력공격 가능성 낮아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 대만 총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이 대만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 당장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명분이 없고, 대만 독립 추진이 없는 환경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은 결국 미국과의 충돌을 의미하는데 현재 중국 경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니다. 단 중기적으로 이번 민주진보당의 총통 후보자인 라이칭더는 차이잉원에 비해 더 강한 독립 사상을 갖고 있어 추후 극단적 행보 추진 여부는 계속 관찰해야 할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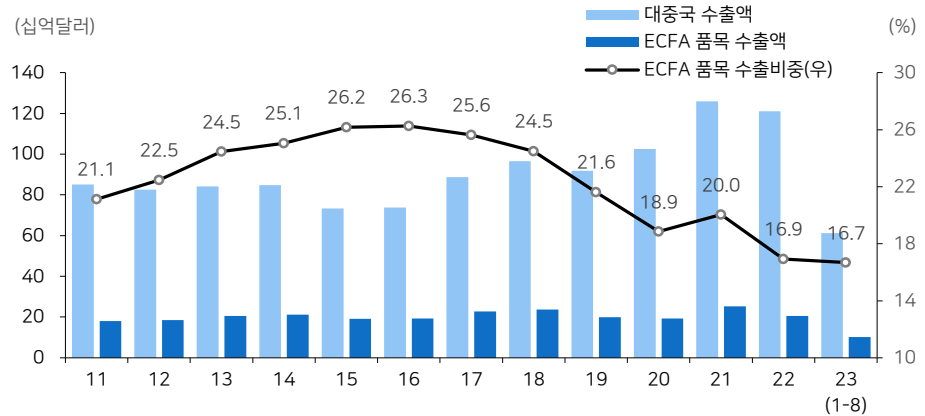
한편 현 집권당이 연임할 경우 미국의 대만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재의 양안 긴장관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4 중국 항공기의 대만 방공식별권(ADIZ) 진입 빈도



자료: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aiw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 및 ECFA 품목 수출액, 비중 추이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대만 ECFA 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ECFA 협정 체결 당시 대만과 중국 측 관세혜택 지정 품목

대만 측 양허 품목수 (대만 HS코드 8단위 기준)	중국 측 양허 품목수 (중국 HS 코드 8단위 기준)
기계류 (69개) 석유화학류 (42개) 방직류 (22개) 운송기기류 (17개) 기타 (117개): 화학품, 놀이시설물, 염/안료, 운동기구, 물드, 금속·고무·유리 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방직류 (136개) 기계류 (107개) 석유화학류 (88개) 운송기기류 (50개) 농산물 (18개) 기타 (140개): 철강, 시멘트, 소형가전, 수공구, 의료기기, 페인트/잉크, 염/안료, 운동기구, 물드, 금속/고무/유리 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총 267개	총 539개

자료: 대만 ECFA 협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민당 정권교체 시,
양안관계 개선, 지정학 리스크 ↓

국민당으로 정권교체 될 경우: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양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1) 대만 주변 군사활동을 줄이고, 2) 친 대만 행보 및 다양한 경제협력(양안무역협정, 중국인의 대만 관광 개방 등) 조치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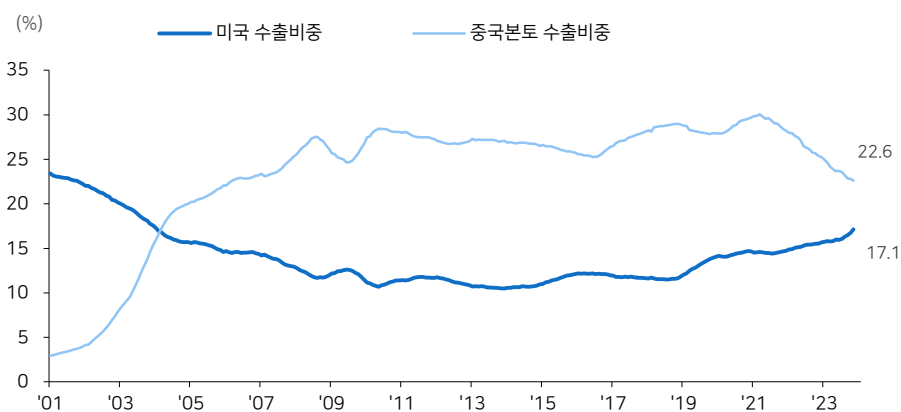
미국의 친 대만 노선 유지 예상

그렇다고 미국의 친 대만 노선이 쉽게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에게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TSMC)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대만의 국민당과 본토와의 관계가 과거 마잉주 시기(2008~2016)처럼 긴밀하지 못하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제압 및 이로 인한 대만 국민의 중국에 대한 여론 전환이 나타났기에 국민당이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9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자의 미국 방문에서도 친중 이미지를 완화하고, 미국과의 무기 구매와 무역협정 등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과 상호 이익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은 부담요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당의 정권교체도 나쁜 것만은 아니기에 친 대만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대만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친 대만 노선은 유지될 것이고 중국의 대만 무력 개입 가능성도 낮다. 대신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양안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겠지만, 민주진보당이 연임할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대만의 전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림6 대만의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비중 변화



자료: 대만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 일부 산업 영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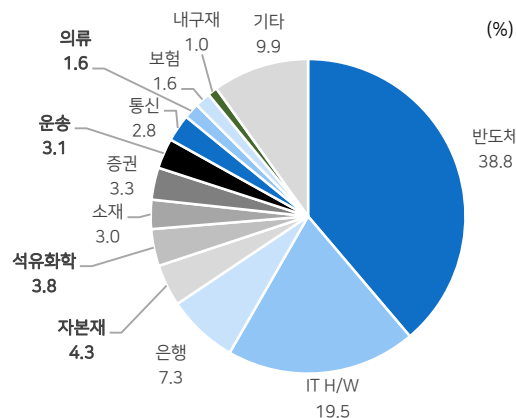
금융시장 영향 중립적

대만 총선이 금융시장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는 앞서 서술했듯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무력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당선될 경우 양안관계가 개선되며,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악영향을 컸던 홍콩 주식시장에 소폭 긍정적인 작용할 수는 있다.

ECFA 관세특혜 철폐 시 대만기업 피해, 주변국 기업 부분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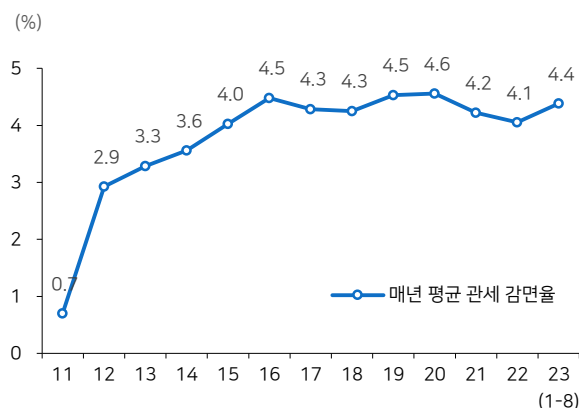
오히려 민주진보당 연임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려하는 ECFA 관세특혜가 실제로 폐기된다면 대만 주식시장에서 방직, 기계, 운송, 석유화학 등 업종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만가권지수에서 피해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 합은 약 12.8%로 추산된다(그림 7). 비중이 낮다 지수보다는 산업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이며, 해당 조치로 대만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평균 관세 감면율 4.4%)이 약해지면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 기업들의 간접적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7 대만가권지수의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분포



주: 2023년 12월 20일 시가총액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ECFA 해당 품목들의 연도별 평균 관세 감면율



자료: 대만 ECFA 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김정욱 연구위원

중국 쇼핑앱의 초저가 공습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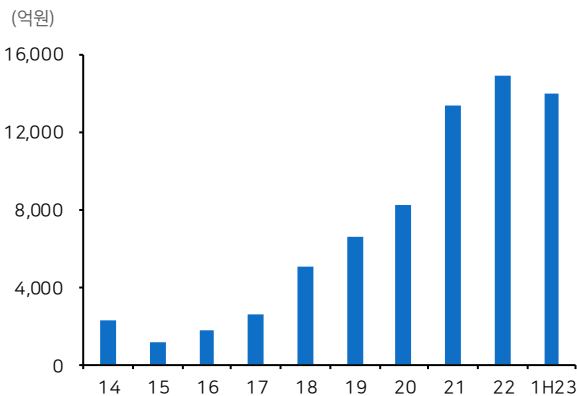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초저가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누적 해외직구 금액은 4조7928억원(YoY +20.4%)을 기록했는데, 그 중 중국 비중은 46.4%, 미국 비중은 29.1%를 차지했다. 23년 10월 해외직구 카테고리 앱 월간 사용자 수(MAU)는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600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무료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쇼핑앱의 국내 MS 상승은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 쇼핑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 중인데, 특히 작년 9월 핀뎬위가 출시한 쇼핑앱 테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테무는 출시 1년 만에 미국 내 MAU 5,200만명을 기록하면서 아마존 MAU의 43%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시장 내 테무의 성장세는 아마존 보다는 달러제너럴, 달러트리 같은 저가 소비재 유통 업체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중국 직구 쇼핑몰이 쿠팡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만큼, 제품의 품질과 배송 등의 서비스 퀄리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직구 쇼핑몰들이 국내에 전용 물류센터를 확보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초저가 상품 물량 공세를 이어간다면 국내 유통업계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들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가파른 중국 직구 플랫폼 성장세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초저가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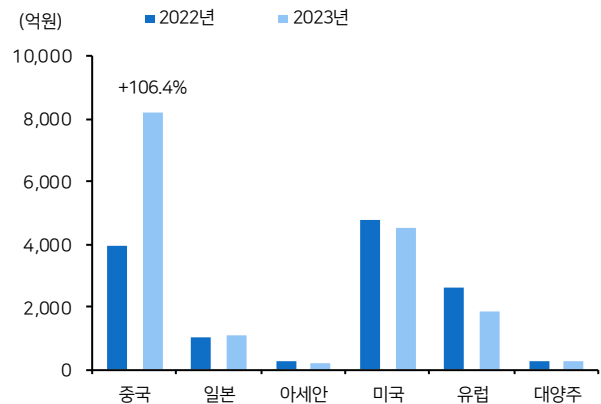
최근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핀뎬위의 테무와 같은 중국의 초저가 쇼핑 앱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초저가 공습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3분기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이 8,1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하면서, 전체 거래액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중국 해외 직구의 품목별 비중은 의류/패션 상품이 56%로 가장 높고 전자 기기와 생활용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1 연도별 중국 직접 구매액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3분기 국가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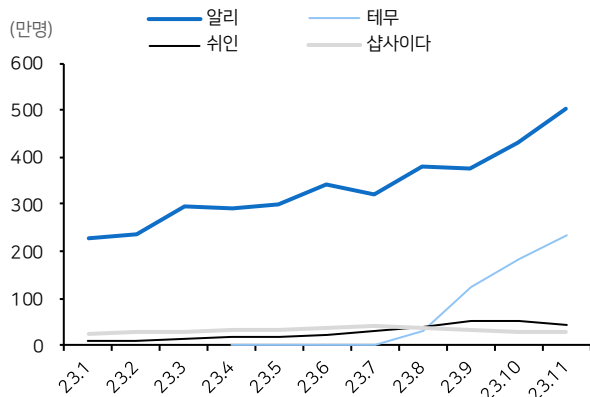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직구 시장 최대 약점인 배송과 서비스도 개선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초저가 프로모션에 더해 배송비와 배송시간까지 개선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년 10월 해외직구 카테고리 앱 월간 사용자 수(MAU)는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600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전 직구 방식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G마켓,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이윤을 붙여 판매해왔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직구 시장의 최대 약점인 배송과 서비스도 큰 폭 개선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물류파트너사와 협력해 배송기간을 5일로 단축시켰고, 22년 11월 한국에 고객센터를 열어 무료배송 및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적용했다. 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올해 한국인 사용자수는 G마켓 사용자수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테무 또한 23년 7월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도 저가 전략을 내세워 꾸준히 성장 중이다.

그림3 중국 쇼핑앱 국내 MAU 추이



자료: 모바일인덱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10월 국내 쇼핑앱별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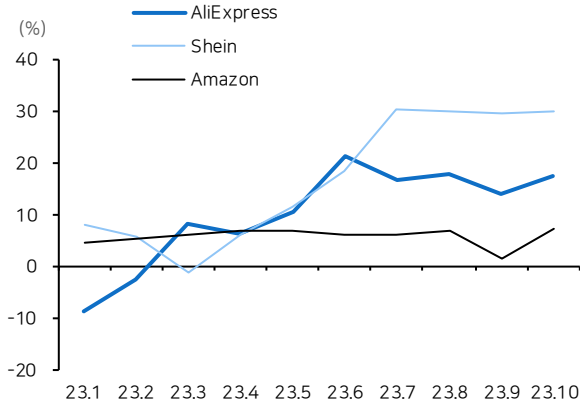
(만 명)	20.10	21.10	22.10	23.10
쿠팡	1,839	2,603	2,896	2,846
11번가	735	894	1,001	816
알리익스프레스	152	206	298	613
G마켓	619	691	632	582
테무				266

자료: 와이즈앱 · 리테일 · 굿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이커머스, 내수 시장 포화로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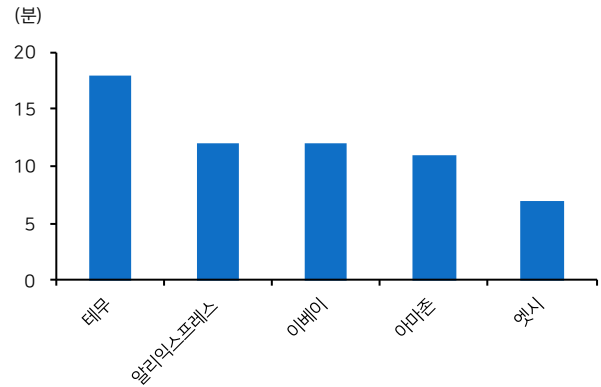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쇼핑앱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은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포화로 알리바바와 핀둬둬가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 쇼핑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 중인데, 특히 테무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테무는 작년 9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미국 내 MAU 5,200만명을 기록했고 아마존 MAU의 43%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테무는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앱이며 미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보다 평균 사용 시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테무 18분 vs 아마존 10분)

그림5 미국 쇼핑앱별 MAU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추이



자료: Sensor Tow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Q23 미국 쇼핑앱별 하루평균 사용 시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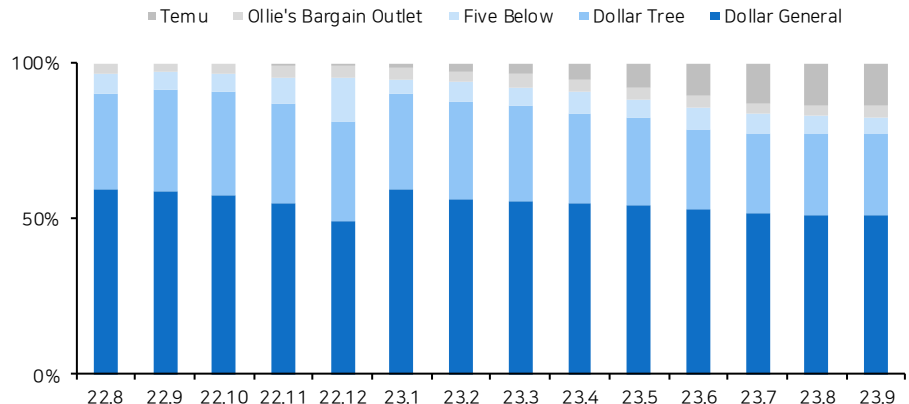
테무의 성공 요인: 핀뒤뒤의 초저가 비즈니스 모델

테무의 미국 시장 성공 요인에는 극강의 가성비도 있겠지만 SNS로 젊은 층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임화 정책도 있다. 이는 핀뒤뒤가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초저가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판매자 대상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완전 위탁 방식을 채택해 판매자가 중국 내 물류 센터에 상품을 배송하면 플랫폼이 가격 책정, 판매, 배송, AS를 전부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초저가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테무의 성장은 달러스토어에 부담

테무는 아마존이 아닌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같은 저가 소비재 유통 업체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성장해왔다. 23년 9월 테무의 미국 내 할인점 MS는 0%에서 14%로 확대된 반면 동기간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 MS는 각각 8%, 4% 감소했다.

그림7 미국 내 할인점 점유율



자료: Earnest Analytic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아마존, 가격 책정 과정에서 테무 제외

한편 아마존과 테무는 서로 다른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다. Numerator에 따르면 아마존 쇼핑객의 절반이 고소득층이며, 더 빠른 배송과 서비스를 위해 유료 구독 서비스인 Prime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테무의 무료 배송은 9~20일로 다소 느릴 뿐 아니라 테무의 반품 정책 또한 아마존 프라임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아마존은 테무의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격 책정 과정에서 테무를 제외했다. 즉, 테무는 카테고리 전반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나 아마존에 비해 배송 기간이 훨씬 길다. 따라서 더 빠른 배송과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테무가 아닌 아마존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그림8 미국 쇼핑업체별 가격, 무료 배송 조건, 배송기간 비교(뉴욕 맨하탄 도착 기준)

카테고리	가격				무료배송 최소 구매액				배송기간			
	테무	쉬인	알리	아마존	테무	쉬인	알리	아마존	테무	쉬인	알리	아마존
의류												
100% 면 티셔츠	100	99	102	83	\$0	>\$29	\$0	\$0	7-12	9-12	11	6-7
폴리에스터 티셔츠	100	123	232	195	\$0	>\$29	\$0	\$0	7-12	9-12	14	4
야구모자	100	170	335	537	\$0	>\$29	\$0	\$0	7-12	9-12	17-23	4
신발												
PVC 플립플랍	100	100	113	150	\$0	>\$29	\$0	\$0	7-12	9-12	13-20	5
가정용품												
배수바구니	100	61	28	161	\$0	>\$29	\$0	\$0	7-12	9-12	22	4
빨래바구니	100	38	23	158	\$0	>\$29	\$0	\$0	7-12	9-12	19-21	4
문구용품												
연필 1다스	100	76	96	138	\$0	>\$29	\$0	\$0	7-12	9-12	11-13	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직구앱 성장에 따른 국내 이커머스 고객 이탈 가능성 주시 필요

국내 시장에서도 테무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선호할 플랫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만큼, 제품의 품질과 배송 등 서비스 퀄리티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기존 유통 채널을 떠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저가 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직구앱은 의류 및 패션 상품의 구매 비중이 높아 의류 유통 채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듯 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직구 쇼핑물들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국내 유통업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전용 물류센터 확보를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초저가 상품 물량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통 업체는 이들의 행보를 주시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원문: PDD Surges 18% After Hit App Temu Wrests Shoppers From Shein (Bloomberg)